

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관리에 총력 대응

-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확대·운영(5개단 12팀 확대)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6월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8월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8월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 감시중

이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여름철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19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관리국장)을 확대 운영키로 하였다.

당초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1개반 5개단 12개 팀으로 확대하여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발생 현황 공유 및 대책 논의를 위해 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1차 질병청, 코로나19 민관협의체 회의(24.8.14. 예정)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되고 있고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까지 늘어날 가능성과 확진 환자 중 65%가 65세 이상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변이 비중이 가장 높은 KP.3에 대한 국내외 기관 분석 결과 중증도와 치명율이 이전 오미크론 변이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미크론 유행 이후인 ‘22-23년도 국내 코로나19 치명율은 0.1% 수준으로, 특히, 50세 미만은 0.01% 미만으로 이번 여름철 유행에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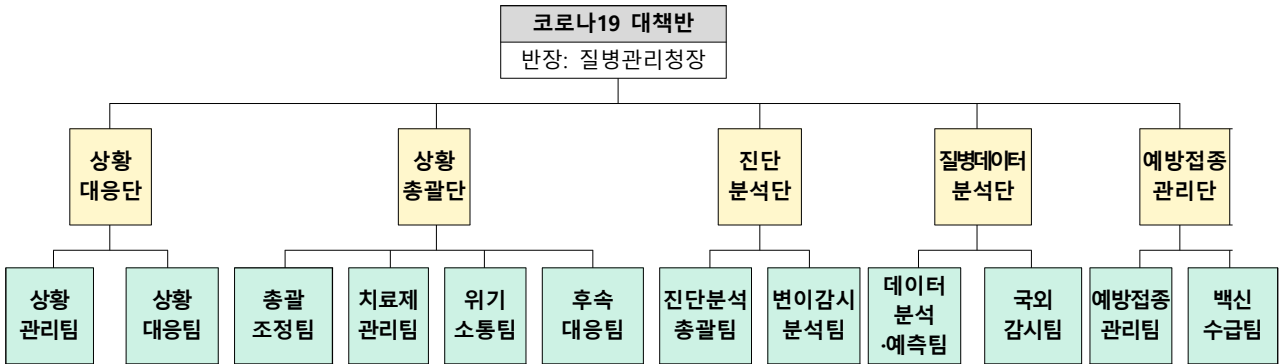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붙임> 1. 코로나19 대책반 구성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요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로 알기(Q&A)
 4.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 포스터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박장호 (043-719-9051)
담당 부서 <협조>	감염병정책국 호흡기감염병대응TF	책임자	팀 장	김동근 (043-719-7150)
		담당자	연구관	현정희 (043-719-7141)



붙임 1 코로나-19 대책반 구성



붙임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개요

정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질병분류	· 법정감염병(제4급) · 질병코드: U07.1, U07.2
병원체	· 코로나비리데과(Coronaviridae family)에 속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
병원소	· 유행 초기 중국 우한시장에서 판매하는 동물 또는 박쥐 등으로 추측
전파경로	· 호흡기 비말에 의한 전파 - 기침, 재채기, 말하기 등으로 인한 호흡기 비말 -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전파(에어로졸) 가능 · 바이러스에 오염된 표면이나 물체를 만진 후 눈, 코, 입을 만지면 감염
잠복기	· 1 ~ 14일(평균 5 ~ 7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확인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 추정진단: 검체(비인두도말, 구인두도말, 가래 등)에서 특이항원 검출
증상	· 발열(37.5°C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치료	· 자율치료 원칙, 입원치료 필요할 경우 입원가능 ·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진료를 받고, 필요시에 치료제 처방받아 관리 - 60세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료제 처방 * 치료제(베클루리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별 투여대상 및 용법·용량이 다르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안내」 확인 필요
전염기간	· 증상 발생 1~3일 전부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 감염 초기에 쉽게 전파 - 감염 첫주 내에 상부 호흡기 바이러스 양이 최고점에 도달 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
치명률	· 전 세계 치명률 약 0.90% ¹⁾ · 우리나라 치명률 약 0.10% ²⁾
관리	<환자관리>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권고격리 기간 동안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증상발현 시 신속하게 진료를 통한 조기치료 <접촉자관리> ·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 예방접종 · 일반적 예방 -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기침예절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마스크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기

1) 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situation-reports. '2023.9.1.

2)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9.4% 감소, 2주 연속 감소 추세. 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참고자료. '2023.8.30.

1. 코로나19는 어떤 질병인가요? 관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코로나19(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인 SARS-CoV-2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무증상부터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주요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 감염병 포털(dportal.kdca.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감염병 포털 > 코로나19 > 코로나19 정보

2. 코로나19 증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코로나19 증상은 일반적으로 노출 후 5-6일에 시작되어 1-14일 동안 지속되며,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오한, 인후통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통, 피로, 콧물, 재채기, 두통, 결막염, 현기증, 기침, 가슴이 답답하거나 가슴 통증, 호흡곤란, 쉼 목소리, 손발저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또는 설사, 미각이나 후각의 상실 또는 변화,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경미하고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염되어도 매우 약한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약 80%)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되거나, 일부에서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고혈압, 심폐질환, 당뇨병이나 암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무증상환자도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나요?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방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전염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많은 환자들은 가벼운 증상만을 경험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일부는 질환의 초기라서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미한 기침 증상만 있거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전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코로나19에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코로나19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 요양 시설 생활자, 기저질환(만성 폐질환, 천식, 심폐질환, 면역억제자, 비만,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만성 간질환, 흡연자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흡연자는 코로나19에 더 위험한가요?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손가락이나 담배가 입술에 닿을 때, 오염된 손가락이나 담배에 있던 바이러스가 손에서 입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흡연자는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폐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코로나19에 걸리면 비흡연자에 비해 중환자실 입원, 사망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가 높습니다.

6. 코로나19 검사는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독감 등 다른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우선 받고,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검사(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서 검사, 치료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직접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어 의사의 진찰과 함께 검사를 받고(유료),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2024.7.26.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예절 실천

- ①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②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③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④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②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①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②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